

2020 **꿈** 을 쏘다 <10> 영화음악감독 박서영

“OST는 나레이션...감정·분위기 불리일으키는 것”

영화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음악 '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는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관객들의 귀를 황홀하게 만들면서 감동을 배가시키기도 한다. 또 영화 속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해 영화의 즐거움을 더하기도 한다.

광주에서 제작되는 거의 모든 단편·독립영화 속 음악을 만드는 박서영(34)씨를 만났다. 박 씨는 '신기록'(2018), '흔한 이름'(2019), '당신은 안드로이드 입니까'(2019), '해미를 찾아서'(2019), '악의 제국: 13일의금요일'(2019), '괜찮아'(2020) 등 광주에서 제작된 장·단편영화 속 음악들을 만들었다.



광주 유일의 영화음악 작곡가 박서영씨는 최근 3년간 16편의 영화에 참여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UCLA서 3년간 영화음악 공부

청룡영화제 수상작 '신기록' 등 광주 제작 독립영화 16편 참여 작곡·편곡·녹음까지 모두 담당

'광주 영화음악팀' 구성 목표

무용·게임·미술 등 영역 확장

작곡가 '소리모아' 박문옥씨 딸



영화 '신기록'

28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UCLA에서 3년동안 영화음악을 공부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찾아주는 곳이 없었다. 서울에서 회사에 취직해 일했지만 직장생활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뒀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던 중 광주에서 독립영화를 만드는 송원재 감독이 영화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연락을 해왔다. 미국에서 돌아온지 딱 1년만이었다. 그렇게 송 감독의 '향상 똑같은 표정의 남자'(2016)는 박 씨의 첫 작품이 됐다.

"첫 작품은 음악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였어요. OST의 비중이 커서 부담감도 있었고 어렵기도 했죠. 하지만 영화 음악을 수없이 만들어 본 지금도 어렵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박 씨는 이후 약 16작품의 음악을 작곡했다. 1년에 4~5개의 작품에 참여해 한

영화당 보통 7~8트랙의 곡을 만든다. 곡을 쓰고 연주자가 필요하면 섭외해서 녹음하는 등 상업영화 음악 제작에는 작곡가, 편곡가, 오케스트레이션, 인턴 등 거의 30명이 투입된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영화 예산이 워낙 적어서 박 씨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낸다.

"광주 영화계가 굉장히 작아요.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참여했다가 쪽 광주에서 활동해 오고 있죠. 영화제작에 투입되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서로가 끈끈한 하나의 팀처럼 계속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 재미있어요."

박 씨는 제39회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허지은, 이경호 감독의 '신기록'에도 참여했다. '신기록'은 한 겨울, 집 근처 운동장에서 경찰 공무원 제력시험을

준비하는 소진과 철봉에 매달려있는 현숙을 통해 데이트 폭력 등 최근 불거진 여성이 겪는 불안함을 보여준다.

박 씨가 제일 공들였던 작품은 주인공이 철봉에 매달려 있는 씬에 사용된 음악이다. 그는 "주로 어쿠스틱한 사운드와 큰 편성의 오케스트라 위주로 작업을 한다"며 "하지만 '신기록' 작업을 하면서 음악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영화 할때 감독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 감독이 '풀숲에 숨어있는 꽃사슴' 같은 느림의 음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죠. 세 번 정도 거절당하고 네 번째서야 감독님의 오케이션이 떨어졌어요. 영상에 걸맞는 음악을 만드려면 감독과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잘해야 좋은 음악이 완성됩니다."

박 씨는 현재 김소영 감독의 '할머니와 감나무'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영화 뿐만 아니라 무용, 게임, 미술전시 등에 쓰이는 음악도 만들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작업해야 하는 영화들이 3편 정도 있어요.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해서 서울 등 다른지역 영화계에서도 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올해 목표 중 하나가 광주 영화음악 팀을 단단하게 꾸리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음악을 더 잘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도 영화를 만들 때 OST를 광주에 의뢰하지 않을까요. '영화음악'하면 누구나 광주를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끝>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나희덕 시인 산문집 '저 불빛들을 기억해' 펴내

2012년 발간된 책 개정...11편 추가
점·선·면...관계에 대한 시선 풀어내



"'점'이 하나의 작은 세계이자 존재의 내밀한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 점이 다른 점과 맞닿으며 탄생하는 '선'은 개체와 또 다른 개체의 만남을 의미한다. 또한 제각기 다양한 형태의 선들이 만나 비로소 완성되는 '면'은 사회 또는 공동체를 뜻한다. (중략) 삶이란 그렇게 점과 선과 면이 역동적으로 만나는 과정일 것이다."

올해로 등단 31년째를 맞은 나희덕 시인이 산문집 '저 불빛들을 기억해'(마음의 숲)를 펴냈다.

등단 이후 줄곧 삶의 통증과 그늘을 서정적인 언어로 그렸던 시인은, 이번 산문집에서 관계에 대한 시선을 풀어낸다. 지난 2012년 첫 발간된 책을 개정한 것으로 새로 쓴 원고 11편이 추가됐다.

산문집의 주제는 점, 선, 면이다. 하나의 작은 세계인 '점', 점과 점이 만나 탄생하는 '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선이 만나 이루어지는 '면'이 그것이다. 저자는 오래전 읽은 칸딘스키의 '점·선·면'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는 점·선·면이 회화적 요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 사이의 축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삶의 구도를 설명하는 적절한

한 개념이라는 의미다.

1부 '점'은 시인이 걸어온 나날들의 자취를 담았다. 유년기, 중·고교시절, 신앙과 연관된 집단생활, 대학시절 등을 토대로 한 경험과 사유가 주를 이룬다. 2부 '선'에는 시인이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이들을 통해 삶의 온기와 활기를 확인했던 경험들이 수록돼 있다. 이 과정에서 시인은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재정비하기도 한다.

3부 '면'은 기후위기, 죽음, 질병과 통증, 현대문명, 세월호 참사 등 세상에 산재한 '전체성'의 관점에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한편 나 시인은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뿌리에게',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야생사과' 등을 펴냈다.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과기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파견작가' 모집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송보)은 지역 작가의 창작활동과 세계 미술무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국제레지던시 국외 파견작가'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국외 파견작가 3명으로, 파견기간 및 기간은 독일 뮌헨시 문화부 국제레지던시 빌라 발드베르타(Villa Waldberta), 대만 타이베이 국립예술대학 관두미술관, 대만 타이완 사육용 아티스트 빌리지에 작가 각 1명씩,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이다.

지원대상자는 광주지역 출신작가로 연령제한 없으며, 영어 혹은 해당국가 언어(독일어,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국외 파견작가로 선정된 작가에게는 각 파견기관으로부터 스튜디오와 거주공간을 제공받게 되며, 광주시립미술관은 선정 작가들에게 국제 왕복항공료와 창작지원비를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이며,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미술관은 서류심사



뮌헨 빌라 발드베르타

와 면접심사를 거쳐 4월 3일 최종 선정작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정을 변경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 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